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국내 1위 · 세계 6위

- 2023년 QS 세계대학평가 발표... '연구 역량' 국내 1위, 세계 TOP 10 유지
- 연구실적 및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평가, "최상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

Rank	University	Citations per Faculty	Faculty Student Ratio	International Students Ratio
1	Indian Institute of Science Bangalore, India	100	56.3	1.9
2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United States	100	99.4	66.9
3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United States	100	72.6	62.2
4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Pasadena, United States	100	100	85.1
5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Cambridge, United States	100	100	90
6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wangju, South Korea	100	39.2	8.8
7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United States	100	10.8	36

▲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부문 순위(지스트 국내 1위, 세계 6위)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6월 9일 오전(한국 시각) 발표한 '2023 QS 세계대학평가(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3)'에서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Citations per Faculty)' 부문 국내 1위(세계 6위)로 평가됐다.

지스트는 올해 결과로 이 부문에서 2008년 이후 15년 연속 국내 1위로 평가됐으며, 세계 대학 중에서도 줄곧 최상위인 2~6위권을 기록해 세계 TOP 10을 유지하는 등 세계 정상급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는 해당 대학 연구자들의 논문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학 연구 역량의 양(量)과 질(質)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다.

올해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부문에서는 2016~2020년(5년간) 동안 해당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해 2016~2021년(6년간) 동안 인용된 '피인용 수'를 '전체 교원 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으며, 지스트는 해당 기간 동안 200여 명의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이 53,000여 회 인용되었다.

특히 이 평가 항목은 '학계 평판'이나 '졸업생 평판'과 같이 설문조사 응답자의 주관적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는 항목과 달리, 대학의 평균적인 연구 실적과 해당 분야의 다른 연구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평가 항목으로 꼽힌다.

지스트의 연구 역량이 10여 년 이상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설립(1993년) 초기부터 '국제화'와 '융합'을 기관 운영 철학으로 삼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온 덕분이다.

지스트는 미국 칼텍(Caltech) 및 MIT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 분야나 학제 사이의 벽을 허물어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로 이뤄진 연구그룹 중심의 융합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전체 교원과 재학생에게 연구에 적합한 정주(定住) 환경을 제공해 주거 걱정 없이 캠퍼스에 머물며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및 포상 제도를 두고 있다.



▲ 지스트 학생이 진화 생태학 실험실에서 식물과 곤충 연구를 하고 있다. 지스트는 올해 QS세계대학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Citations per Faculty)' 부문에서 국내 1위(세계 6위)로 평가됐다. 지스트는 이 부문에서 2008년부터 15년 연속 국내 1위, 세계 TOP 10 을 유지하며 세계 정상급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부문에서 국내 대학 중에서는 지스트뿐만 아니라 연구 중심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대부분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과학기술 분야 R&D와 미래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및 집중적인 지원이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과 연구·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국내 대학으로는 지스트에 이어 UNIST(울산과학기술원)가 세계 11위로 평가되었으며, 포스텍(POSTECH)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세계 26·27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1위는 인도 과학원(Indian Institute of Science)이 차지했으며,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칼텍(Caltech), MIT가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기선 총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기관운영 철학을 존중하는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지스트 연구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스트-MIT 국제협력사업 및 AI 데이터센터(HPC) 구축사업 추진 등 AI 기반 강화를 통해 지스트의 연구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모범으로서 AI 중심도시 구축의 핵심 역할을 위해 연구뿐 아니라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QS는 매년 6월에 세계대학평가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3 QS 세계대학평가’ 결과를 2022년 6월 9일에 발표했다.